

어린이들의 모국어(조선어)습득단계와 특징

박사 부교수 정 래 순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것은 오직 육체적생명뿐이다.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그 어떤 사회적속성도 부여할수 없으며 오직 사회적실천만이 인간에게 사회적인 성격을 부여할수 있다.》(《김정일전집》 제20권 249~250페이지)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점차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사람은 위력한 사회적인 교제수단을 가지고 언어활동에 참가하게 되며 나아가서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며 변혁해나가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내용적으로 볼 때 언어습득은 모국어습득과 외국어학습(습득)의 두 측면에서 진행된다.

모국어(母國語 mother tongue)습득이 심리언어학의 연구대상의 하나로 되는것은 첫째로, 모국어습득이 인간의 언어활동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인 동시에 사람들사이의 언어교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 필수적전제로 되기때문이다. 둘째로, 모국어습득의 해명이 인간의 사고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는 기본방법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셋째로, 모국어습득이 언어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외국어학습의 심리언어학적요인들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유년기어린이들의 모국어습득에 대한 언어학적연구》(주체91(2002)), 《모국어습득과 외국어학습의 호상관관계의 몇가지 내용》(주체104(2015)), 《심리언어학》(주체106(2017)), 《외국인들을 위한 조선어교육학연구》(주체107(2018)) 등을 비롯한 논문들과 도서들에서 모국어습득에 대하여 일정하게 논의되였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어린이들속에서 모국어습득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을 심리언어학적견지에서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모국어습득의 단계

언어습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현상으로서의 언어를 개인적인 언어행위의 수단, 언어교제의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언어습득은 그자체가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서 여러 단계와 공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언어형성기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첫 언어를 배우게 되는 12~13살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것을 언어형성의 《림계기(臨界期)》라고도 한다. 이 시기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국어를 배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언어형성기는 다시 두 시기로 구분한다.

첫 시기는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에게서 처음으로 입말언어행위가 진행되는 5~6살까지의 시기이며 둘째 시기는 그 이후부터 12~13살까지의 학령전 및 소학교의 교육을 통한 언어의 습득과 발전의 시기이다.

많은 경우 모국어습득에 대해서는 언어형성기의 두 시기중에서 주로 첫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언어형성기의 첫 시기에 모국어습득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언어발생 이전단계로서 태어나서부터 1살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이 단계에서 어린이는 먼저 소리에 대한 지각을 시작한다.

최초의 소리에 대한 어린이들의 지각은 어음론적견지에서 볼 때 다음의 세단계를 거친다고 말할수 있다.

첫 예비적단계에서는 사람의 소리와 다른 소리를, 다음단계에서는 소리마디와 그 순서를, 마지막단계에서는 어조와 력점을 구별하게 된다.

갓난애기가 내는 소리는 아직은 그자체가 언어인것은 아니다. 그것은 갓난애기가 내는 소리가 비록 동물들이 내는 소리와는 달리 유절음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아직 언어적 의미를 담을수 없기때문이다.

말소리가 자연의 소리일반과 구별되는 점은 그것이 유절음이면서 또 의미를 담을수 있는데 있다. 말하자면 사람의 음성은 그것이 일정한 대상과의 약속된 표식으로 되어 어떤 신호적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언어행위의 어음적요소로서의 자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아직 말을 할수 없는 이 시기에 어린이들은 주로 웃음, 피부접촉과 몸짓, 표정, 웅아리 등 비언어적방법으로 자기의 생리적요구를 나타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의 하나는 어린이의 울음소리이다. 그것은 갓난애기의 울음소리는 아직 말소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린이의 정서상태와 결부되어있고 정신적기능의 발전과정이 그대로 울음소리에 반영되기때문이다.

나서 한달정도까지는 아직 배고픔, 갈증, 기쁨과 아픔 등에 대한 반응이 울음소리로써 구별되지 않는 주로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이것은 울음소리의 심리적성격이 적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른들은 처음에 그것을 리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20~30일이 지나면 울음소리에서 배고픔과 졸음, 아픔과 놀라움, 성난것 등이 알리기 시작하며 이때는 소리의 높이나 길이, 시작과 끝맺음사이의 세기나 높이의 곡선 등을 실마리로 하여 어린이의 요구특징을 판단할수 있다.

말의 발생에서 보다 중요한것은 웅아리(babbling)이다.

웅아리는 갓난애기가 잘 돌지 않는 허로써 불완전하게라도 발음하려는 일종의 본능적인 소리내기현상이다.

웅아리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2달말이나 3달경에 발성기관을 리용한 놀음적요소가 강한 소리를 내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웅아리의 특징은 반복성에 있는데 그 류형은 크게 세가지이다.

- 단음절반복: 바— 바—
- 반복적인 다음절: 바바— 부부—
- 비반복적인 다음절: 마바— 부무—

웅아리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6달이후에 대단히 활발해진다.

나서 한달 때에는 모음이 많고 자음은 거의 나오지 않으며 4~5달사이에는 자음, 모음의 음운분화가 명백하게 알린다. 그러나 6달시기에 이르러서는 현저한 발달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목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입술소리가 잘 결합되어 점차 복잡해지는 웅아리는 말소리와 비슷하기는 하나 아직 조음화가 불충분하고 의미가 명확치 못한 특수한 전달로서 이것은 언어와는 뚜렷이 차이난다.

말발생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어린이가 일정한 소리를 듣고 따라하게 되는것이다.

어린이는 태어나 5~6달이 되면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는 제김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제가 낸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하거나 때로는 조용해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귀맛이 좋을 때에는 반복하여 소리를 내기도 한다. 소리를 내고 자기가 들으며 좋아한다는것은 곧 청각기관과 발음기관의 공동활동이 시작되었다는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발음하는 과정에 생겨난 뇌수의 흥분점과 자기 말소리가 뇌수에 들어가서 생겨난 흥분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으로서 앞으로 말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말하는 능력이 생길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어린이는 자기가 소리를 내고 그것을 또 자기가 듣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하여 점차 분화한 소리를 들을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낼수 있게 되어간다.

※ 통아어린이(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인 경우에도 웅아리는 나타나지만 청각능력을 잃었기때문에 웅아리에서 말소리로의 이행과정이 장애를 받는다.

웅아리와 소리따르기가 계속 반복되어가는 가운데 어린이는 점차 소리마디를 습득해 나간다.

소리마디의 습득은 주로 모음인 경우 홀모음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가운데서도 삼키는 동작과 관련된것이 먼저 나타나며 자음인 경우에는 입술소리, 앞입천장소리, 이몸소리, 이소리, 뒤입천장소리 등이 차례로 나타난다.

그 원인은 우선 최초의 소리가 주로 젖을 빨고 삼키는것과 같은 어린이의 선천적인 동작과 련관된 발음기관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출발하고있기때문이며 또한 발음기관이 호흡과 섭식을 동시에 맡아하고있는 중복된 기관이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태어나 9달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를수 있게 된다.

소리따르기가 심해진다는것은 곧 다른 사람이 내는 말소리에 주의가 돌려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어린이는 주변의 어른이나 큰 아이들의 입모양을 유심히 쳐다보는듯 하며 발음을 3~4번 반복하여 들려주면 그에 비슷한 소리로 응답하려는것이 알린다.

입술운동을 주시하는것은 곧 음성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을 의미한다. 발음기관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소리를 내는 입놀림과 혀놀림도 아주 다양해지면서 어린이는 말소리를 충분히 낼수 있게 준비되어간다.

결국 언어형성기의 초기단계에서는 처음에 울음소리의 미분화에서부터 울음소리의 분화 그리고 웅아리에서 소리따르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기는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에게서 아직 말이 없는 시기라는데로부터 보통 《자궁밖의 태아시기》라고 한다.

이 단계는 앞으로의 말발생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그것은 이 단계에서부터 어린이와 사회적인것과의 영향이 비로소 시작되며 특히 말발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웅아리나 소리의 따르기 같은 현상이 적극적인 사회관계를 통하여 점차 언어적인것으로 옮겨고 발전해나가기때문이다.

둘째 단계(언어생성단계)는 말이 나오는 단계로서 첫돌시기로부터 5~6살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10달이 지나 돌에 접어들면서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최초의 말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린이의 성장과정은 곧 말이 나오는, 말이 시작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돌 이후의 어린이의 모든 발전과정은 모국어습득과정과 결부되어있으며 또 그에 의하여 제약된다.

※ 언어습득은 대부분 모국어(모어)의 습득으로 시작되지만 특수한 경우 어린이가 자라는 사회환경에 따라 외국어의 습득으로 시작될수도 있다.(레컨대 일본에 사는 조선사람의 자식들인 경우 그들은 일본어를 모어로 먼저 배운 다음에야 모국어인 조선어를 배우는 경우가 있다.)

돌을 전후한 시기 어린이들은 말하고 걷는것을 동시에 시작한다.

이때부터 하나, 둘 말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5~6살 되는 사이에 모국어습득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첫돌이후부터는 의식성, 말하기, 걸기가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발전의 전환의 시기라고 할수 있다.

사회적관계속에 놓인 갓난애기가 말을 할수 있게 되자면 말소리를 원만히 내고 들을수 있는 발음과 청각기관이 제대로 발달해야 하고 대상과 말소리사이의 연계 즉 의미에 대한 리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되는것은 어린이자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교제요구를 제기할수 있어야 한다. 이가운데서 교제요구, 교제의도의 출현은 말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것은 아무리 발음기관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자신이 언어를 통한 교제를 절실히 요구하지 않거나 그것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면 말의 출현을 현실적으로 기대할수 없기때문이다.

어린이가 교제의도를 가지고 말을 배우려고 하는것은 여러 계기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레컨대 어린이들은 자기 주위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며 또 부정이나 명령같은 자기 의사를 나타내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사회적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서 말의 발생은 단어를 배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단어를 배우는 과정에 단순히 그것을 발음할수 있게 될뿐아니라 그 단어속에 일반화되어있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폭넓은 내용에 대하여 점차 알게 되는것이다.

돌을 전후하여 어린이들에게서 첫말이 나타난다.

첫말의 언어학적특징은 첫째로, 아직 아무런 문법적형태도 갖추지 않은 하나의 단어로써 구체적인 정황에서 사실상 여러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것이다.

- 《엄마》 — 엄마가 있다.
- 우리 엄마다.
- 엄마 오라.
- 엄마 저거 달라.

둘째로, 모든 첫말은 눈앞에 있는 대상에 대한 직관적명명으로 되는 명사들이라는것이다.

어린이는 명사들중에서도 어머니와 같이 자기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자기 생활과 제일 밀접히 련관된 대상들의 이름을 먼저 알게 된다.

셋째로, 첫말의 음운구성은 단순하며 대부분 음절이 한두개, 많아서 3개정도이고 반복적인것이라는것이다.

그런데로부터 대부분은 상징적이어서 어른들의 말과는 왕왕 차이난다.

- 자동차 - 빠방, 잉
- 강아지, 개 - 멍멍, 멍멍이, 왕왕
- 닭 - 꼬꼬댁, 꼬꼬대기, 꼬꼬
- 오리 - 뽁뽁이, 뽁뽁

상징적인 첫말들은 음절구성이 반복적이어서 발음하기가 아주 쉽고 음악적인 높고낮음을 동반한 리듬적인것이 특징이다.

넷째로, 첫말은 대체로 그 수명이 짧다는것이다.

첫말은 《애기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언어습득의 제일 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애기식발음의 첫말은 보통 1살반부터 2살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 급속히 어른말로 바뀌어간다.

애기말이 어른말로 바뀌는 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동음이의적인 단어거나 나란히 쓰이는 경우 어린이가 전달상에서 여러가지 곤란을 느끼게 된다는것, 점차 종적인 단어들이 많이 습득되어간다는것,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것에 대하여 이제 더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것, 어른이나 큰아이들이 쓰는 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것, 애기말을 어른말로 바꾸어주기 위한 어머니들의 의도적인 노력 등을 꼽을수 있다.

물론 집안의 막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좀더 오래동안 애기말이 남아있을수 있다.

만일 2살이 지나도록 애기말을 계속 쓰게 되면 어린이는 새로운 많은 단어를 습득할 기회를 그만큼 잃게 되며 언어교제와 사회관계에서도 활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다섯째로, 첫말은 대상에 대한 명명과 그에 대한 지시작용을 동시에 가지고있는것이다.

가령 어린이가 《뽁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눈앞에 있는 실물(실물이 그려진 그림이나 동영상인 경우라도 됨.)을 부르며 가리키는것이다.

여섯째로, 첫말은 때때로 동작과 밀접히 결부되어있어서 마치 동작과 말이 한데 녹아붙어있는것처럼 보이는것이다.

생겨난 순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단어는 동작과 밀접하게 련관되어있다.

첫말을 하는 시기에 어린이는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사람들의 말을 따라하기 좋아하며 말소리와 구체적인 사물현상과의 련계를 더 많이 인식하려고 한다.

첫말은 구조상으로, 형식상으로 볼 때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기능상에서 보면 웅근 문장과 맞먹기때문에 이것을 《한단어문장》이라고 할수 있다. 말하자면 형식상으로는 단어인데 그 의미기능은 문장과 맞먹는것이 바로 첫말 - 한단어문장이다.

첫말이 생겨남으로써 어린이는 우선 자기와 다른 사람, 물건(대상)사이의 여러 의미관계를 비로소 언어로 나타낼수 있게 되며 한편 첫말의 발생은 점차 분석과 종합, 추상화와 일반화, 구체화와 체계화 등 어린이의 성장에 따르는 사고조작기능을 높여주고 대상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파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적극 작용한다.

한단어문장은 돌반까지 계속된다.

다음으로 돌반정도가 되는 시기에 이르면 두단어문장이 나타난다.

두단어문장은 2개의 단어가 문법적형식을 원만히 갖추지 못한채로 결합되어 문장과 같은 의미기능을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두단어문장은 주로 절대격형태로 단어들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일부 술어만이 명령이나 추감, 물음 등의 형태를 띠는것이 일반적이다.

두단어문장의 유형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어+술어》형
 - 이거 꼬꼬댁이.
 - 누나 공부한다.
 - 아버지가 옥해.
- 《보어+술어》형
 - 나 달라.
 - 멍멍이 바(봐).
 - 사가 까까.(사과 꺾아달라.)
- 《상황어+술어》형
 - 또 달라.
 - 다 받(뵈)다.
- 《호칭어+술어》형
 - 엄마, 가.(가자, 가라.)
 - 아빠, 오야.(오라)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나 2개의 단어로써 일정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낸다는것은 이 시기 어린이들이 구체적인 대상과 행동을 결합시키는 능력을 갖추어나간다는것을 보여준다.

돌반이 지나 2살까지의 시기에는 여러개 동사들에 대한 발음이 나타나며 그것이 이미 배운 명사와 결합되어 쓰이기 시작한다. 특히 사물현상, 대상마다에 이름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보다 많은것을 물어보는 과정에 단어소유량은 급속히 늘어난다.

단어가 늘어나고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이 깊이있게 진행됨에 따라 2살이 지난 어린이는 3개의 단어로 결합된 단순문장도 사용할수 있게 된다.

- 나 엄마하구 뽀뽀해.
- 빨강거 사과 먹어.
- 빠방 잉— 가.
- 우유 많이 먹어.

이 단순문장들은 2~3개의 대상이 동시에 이야기되고 단어들이 일정한 문장성분으로 배열된다는데서 두단어문장과 구별된다.

2살반시기 모국어습득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여러가지로 단어결합을 할수 있게 되고 토도 점차 사용하면서 모든 문장성분을 거의다 갖추어쓰는것이다. 이때 주로 두 단어관계를 유지하면서 두단어문장의 앞에 호칭어가 오거나 또는 단어순서에 관계없이 핵심적단어를 반복하면서 문장길이를 점차 늘어나간다.

또한 이 시기부터는 주로 명사, 동사에 머물던 그 이전과는 달리 형용사, 부사 등이 나타남으로써 표현이 한결 풍부하고 정확해진다.

또한 문장형식을 보면 개별적문장들을 라렬하는데 그치고 그것을 하나의 잘 려관된 문장으로 미끈하게 엮지는 못한다. 레컨데 사과를 가득 실은 자동차가 탁아소에 오는 그림을 보이면 《자동차 간다.》, 《이거 사과야.》, 《탁아소에 와.》라고 단순문장들로 끊어서 말하기가 쉽다.

결국 세단어, 네단어문장은 어디까지나 두 단어를 기초로 하여 확장된것이며 이야기 목적에서 볼 때도 주로 감탄문이라든가 알림문 같은것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2살반이 지나 3살에 이르면 병렬복합문사용이 나타난다.

- 이건 크구 요건 쪼꼬매.
- 눈이 오니까 출구나.
- 업만 직장 가구 난 미래탁아소 가.

이 시기의 언어적특징은 우선 처음의 병렬복합문은 단순문장들이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련결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

또한 각종 토에 의하여 문장성분들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각이한 문장류형들이 부단한 사용과정에 점점 세련되어가는것이다.

또한 병렬만이 아니라 점차 종속복합문도 나타나면서 문장이 꺾 길어지는것이다.

그리고 어순도 상당히 자유로와진다.

- 텔레비소리가 크니까 내가 노래 하간.
- 이거 연필 가지구 공부하는거 책이지?
- 바람불문 바깥에 못 나가, 추워서.
- 요거 누가 먹는거 약이나?
- 총 멘건 우리 군대구 이젠 나쁜놈이야.
- 나 너하구 같이 콤퓨터노래하는거 하자.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시기 어린이들의 사고가 그만큼 복잡해지고 교제령역과 활동이 다양해지는데 그 원인이 있다.

3살이 지나고 4살, 5살에 이르면 어린이는 접속토, 도움토, 규정토 등 거의 모든 류형의 토들을 다 쓰기 시작하며 그 사용도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와진다. 물론 입말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4~5살시기의 언어사용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활동과 함께 아직 혼자말같은것도 때때로 나타나군 한다.

5~6살을 넘어서는 어른말과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수 없게 입말이 완성된다.

결국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는 아직은 단어이전의 일종의 《신포》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한단어, 두단어문장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완전한 문장형식으로 말을 할수 있게 된다.

입말을 습득함으로써 어린이는 점차 자기와 주위세계에 대한 파악을 더 깊이, 더 다방면적으로 잘할수 있게 되고 의식발전이 그만큼 다그쳐지게 된다.

각 나이구분에 따르는 모국어습득과 발달의 기본지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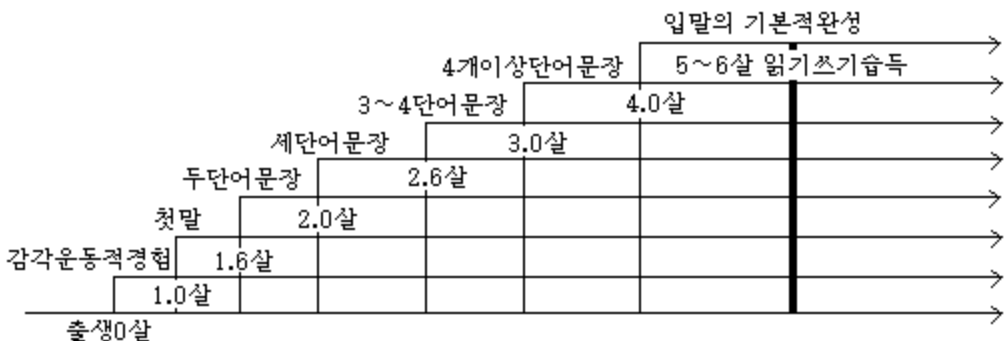


표 : 모국어습득과 발달의 기본지표

조선에서는 입말이 기본적으로 완성된 6살 어린이들에게 모국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첫단계－학령전의무교육이 실시된다.

2.2. 모국어습득의 특징

첫째로, 어린이들은 완성된 언어형식을 먼저 배운 다음 그에 기초하여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들은 언어자료를 부단히 접촉하고 들으면서 동시에 언어적수단도, 교제에 이용되는 비언어적수단도 함께 배워나간다.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체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들의 모국어습득과 지능발전에서 아주 이상적인 조건으로 된다. 어린이들은 나이와 성장발전에 맞게 훌륭하게 꾸려진 탁아소와 유치원의 국가적시설과 혜택아래서 체계적인 모국어를 정확하고 빠르게 습득해나간다.

둘째로, 모국어습득에서 단어와 같은 어휘소유량의 증가는 아주 급격히 이루어진다.

언어의 습득은 곧 단어의 습득이고 그 소유량의 증가이다.

그것은 단어가 언어의 기본단위이며 또 단어의 습득으로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사회적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기때문이다.

단어습득은 보통 일정한 시간안에 어린이가 말하는 어휘전부를 기록하여 관찰하는 방법, 시간의 제한이 없이 련속 단어를 기록하여 관찰하는 방법, 그림을 보이면서 그 이름을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할수 있다.

어린이가 배워내는 단어량은 매달, 매해 같은 속도로 늘어나는것이 아니며 일정한 단계와 순차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난다.

태어나 돌이 될무렵 첫말, 첫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4~5살에 이르면 단어습득량이 무려 1500~2000개이상으로 늘어난다.

자료적으로 볼 때 첫돌무렵에 한두개 단어이던것이 1살반경에는 월평균 8~10개이상, 1살반을 지나서부터는 30~40개, 3살부터는 60~70개이상으로 어휘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중에서도 3~4살시기의 어휘증가가 가장 현저하다. 이때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단어들 즉 처음 주로 명사만이던것이 동사, 형용사 등 새 품사가 출현하는가 하면 한단어문장이 두단어문장, 세단어문장으로 발전한다.

이리하여 2살때의 처음 증가속도는 약 3~4배로부터 5~6살사이에는 8~9배로 어휘가 급격히 늘어난다.

어휘의 급격한 증가는 다음과 같은데 그 원인이 있다.

우선 사물마다에 이름이 있다는것을 어린이자신이 인식하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또한 어린이의 지적능력이 발전하고 활동범위, 교제범위가 그만큼 확대되는것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 특히 교제의도와 그 범위의 증가는 어휘발전과 증가에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인으로 된다.

어휘습득은 어린이가 늘쓰는말, 자기 주위와 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많이, 가장 가깝게 쓰는 말부터 시작하는데 특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는 그 증가량이 제일 현저한 4살까지의 사이에 거의 모두 나오고 머리속에 기억된다. 그 이후는 단어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문장구성이 다양해진다는 의미에서 증가해간다고 볼수 있다.

셋째로, 모국어습득과정에 의미에 대한 이해는 표현보다 앞서 먼저 나타난다.

의미에 대한 이해는 언어습득에서 가장 선차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공정의 하나이다.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언어습득이 사물현상을 구별하고 표현하는 의미리해활동, 인식활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언어습득은 발성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당 민족어의 음운체계 안의 매개 음운의 정확한 발성과 동시에 그것을 통한 대상, 현상과의 련관관계를 리해하는것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해당한 발성이 반드시 일정한 사물현상과의 대응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눈앞에 없는 대상, 현상까지도 나타내게 될 때라야 비로소 언어습득에 대하여 말할수 있는것이다.

어린이는 먼저 말을 할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의미적경험을 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먼저 의미적경험을 하고 그것을 심화해나가는 과정에 말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습득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언어에 대한 《리해》와 《사용》이 다같이 포함되게 된다.

젓먹이는 아직 말을 할수 없으나 어른들의 말은 어느 정도 리해한다.

처음에는 몸짓과 같은 행동을 리해하고 점차 그것이 말과 결합되는것을 리해하기 시작한다.

이런데로부터 태어나 5~6달이 된 어린이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는것을 볼수 있다. 물론 처음에 이것은 어조와 몸짓, 표정 등이 다같이 결합된것들이다. 때문에 업을 준비를 하고 《업바!》라고 하면 어린이는 곧 업히려는 동작으로 반응을 보이다가도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을 떠나 그저 순수 《업바!》라고 말만 하면 앞에서와 같은 행동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돌전의 어린이는 《금지》에 대한 리해도 제법 할수 있으며 자기 이름을 알아듣기때문에 누가 이름을 부르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말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굴을 인차 돌린다.

이 시기 어린이는 자기 어머니의 말소리도 아주 잘 구별하는데 그것 역시 어조를 동반하는것에 대한 리해이므로 좋은 말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욕하는 어조나 표정을 가지고 하면 우는것을 종종 볼수 있다.

결국 이것은 어조에 대한 반응이 먼저 작용하며 나아가서 발성보다 먼저 그 의미부터 리해하기 시작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넷째로, 모국어습득의 초시기에는 첫말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사용한다.

다시말하여 첫말로 나타난 단어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단어가 여러 대상들을 통털어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것이다.

- 아버지 - 남자 일반을 다 가리키는 말.
- 녀자 - 치마입은 사람, 머리칼이 긴 사람 일반을 다 가리키는 말.
- 맘마 - 먹는것을 두루 다 가리키는 말.
- 멍멍 - 네발가진 짐승 일반을 가리키는 말.

첫말을 배우는 어린이가 이처럼 한 단어를 여러 단어에 지나치게 확장하여 사용하는 현상은 모국어습득의 전과정에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말을 처음 배우는 초시기에 현저한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돌 한달경에서부터 2살 6달사이에 많이 일어난다.

특정한 단어의 확장사용은 6개월이상으로 계속되지 않으며 더우기 모든 단어가 반드시 이렇게 확장되어 쓰이는것도 아니다.

단어가 확장되어 쓰이는 현상은 어휘의 증가와 함께 점차 없어지는 일시적현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린이들의 신경계통발전에 따르는 언어의 일반화수준을 반영한것으로서 어린이들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류적인것으로부터 점차 종적인것으로 나아가면서 이루어진다는 일반적법칙성을 보여준다.

3살이나 3살반정도에 이르면 어린이들은 1차, 2차 언어종합기에 토대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들에 감수성반영을 대신하는 3차 언어종합기가 형성됨으로써 《장난감》속에 《인형애기》, 《놀이감총》, 《놀이감자동차》, 《놀이감시계》 같은것을 포함할수 있게 된다.

그후 5살정도에 이르면 4차 언어종합기가 형성되어 《장난감》, 《책》, 《의자》 등이 다 《물건》속에 포함된다는것을 점차 이해하고 말할줄 알게 된다.

이처럼 언어적추상화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명명적의미도 더 넓어지며 따라서 언어는 대상의 구체적반영과는 더욱더 멀어지면서 추상성을 띠게 된다.

다섯째로, 모국어습득의 초기기에는 발음에서의 혼란이 심하게 나타난다.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는것은 모국어습득에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되지만 어린이가 처음부터 정확한 발음을 할수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돌부터 돌반사이에 어린이의 발음에서 혼란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단어들이 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입말교제가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 3살정도 어린이의 발음에서도 많이 보여진다.

- 어음이나 음절의 생략 및 줄이기
 - 장갑→장가, 자동차→장차, 사탕→아탕, 아저씨→아찌
- 터스침소리되기
 - 시계→지계, 새→채, 뺨스→뺨즈, 염소→염초
- 어음끼우기
 - 치마→침마, 할머니→할루머니, 짜르다→잘르다, 하모니카→함모니카
- 어음빠지기
 - 오라→오야, 고기→고이
- 홀모음되기
 - 고와서→고아서, 사과→사가, 컴퓨터→컴퓨터
- 자리바꾸기
 - 해바라기→해라바기

3살정도이면 어린이가 단어들의 개별적음절을 따로따로 발음할 때에는 정확히 하다가도 그것을 련결하여 말할 때에는 또 틀린 발음을 하곤 하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5살정도가 되면 발음의 정확도가 73%정도, 5살이 지나 6살때에는 발음의 정확도가 거의 100%에 이르러 입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확해진다.

모국어습득의 초기기에 나타나는 발음의 혼란으로 하여 처음에는 부모라든가 한집안 식구들처럼 늘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린이의 말을 잘 이해할수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20~30%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발음에서의 이러한 혼란은 어린이의 발음 및 청각기관과 그 운동의 미숙성과 부정확성, 어린이자신이 알고있는 단어가 적고 기억력의 범위도 제한되어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수 있다. 또 듣기와 발음의 부단한 숙련기일이 짧은데로부터 발음토대가 확고하게 잡히지 못한것도 발음상혼란의 원인으로 된다.

3살이 지나 4살정부터는 입말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워지며 5~6살이 되면 어린이는 정확한 발음을 할수 있게 되어 학령전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게 된다.

발음이 정확하고 선명하다는것은 그만큼 언어구조가 몸에 배고 말과 대상과의 련계가 공고해졌다는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어린이의 언어청각이 예민하고 언어감정이 풍부하며 발성기관이 그만큼 섬세하게 움직인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일 5살이 지나서도 혀가 돌지 않는 발음을 한다면 그것은 발음발달이 더딘 어린이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발음발달이 더딘 원인은 어린이의 지능발달자체가 더디던가 혀, 입술, 입천장과 같은 발음기관에 어떤 장애가 있는데서 또는 갓난애기발음의 습관이 남아있는데로부터 생긴다고 볼수 있다.

여섯째로, 모국어습득에서 문법적요소의 출현은 어휘의 경우보다 많이 늦어진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습득에서는 2살반~3살경에 이르러서야 언어가 구조적으로 정리된다. 이것은 어휘가 풍부해지는것과 함께 단어들의 련결수단이나 그 결합규칙 그리고 문장의 구성이 자유로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결국 어린이가 첫 단어로 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반~2년이 되어서야 문장단계에 이르게 되는것이다.

토와 그에 의한 문장 등의 활용은 어휘활용보다 늦게 나타나지만 그 발전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즉 돌반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법적수단의 도움이 없이 그저 단어로만 자기 생각을 나타내던 어린이들에게서 3살이나 3살반정도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어른문법》의 그 풍부하고도 복잡한 언어능력의 기초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여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문법적형태로서 맨 처음 나타나는것은 절대격형태이다.

처음의 절대격형태는 주로 주격, 속격, 대격의 의미를 가지고 두단어문장의 초시기에 나타난다.

- 엄마 가.(주격의 의미)
- 아빠 책.(속격의 의미)
- 멍멍이 보라.(대격의 의미)

따라서 이때의 문장은 마치 《전보문》과 같은 형식이다.

문법에 대한 느낌과 관심은 어린이들의 나이와 함께 점차 자라나고 커진다.

때문에 3살짜리 어린이들은 말을 하다가 멈추고 틀린것을 고치거나 다른 어린이의 틀린 말을 고쳐주기도 한다.

- 나 래일 사과 먹었다. → 아니야, 오늘보구 래일이래.

4~6살정도의 어린이들은 자기의 기준에 의하여 말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못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게 된다.

문법에 관한 어린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어순에서 나타난다.

조선어에서 어순의 상당한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말을 배우는 어린이들은 규정어를 피규정어의 앞이 아니라 뒤에 놓는 식의 오용은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5~6살정도의 나이에 이르면 어린이들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표상을 가지고 말을 리해하고 잘 표현해낼수 있게 된다.

어린이의 모국어습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입말의 자유로운 습득으로 하여 어린이는 6살부터 모국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지능정서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교육학적기초가 마련된다.

둘째로, 모국어를 습득하고 그를 통한 교제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는데 따라 어린이는 자연과 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과학적인식을 해나갈수 있는 실질적담보를 가

지게 된다.

셋째로, 입말의 자유로운 사용은 문자쓰기와 같은 언어사용의 다른 측면을 더 빨리, 더 정확히 완성하도록 적극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앞으로 입말과 함께 글말까지도 다같이 완성하여 언어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체모를 더 훌륭히 갖추어 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될 수 있게 한다.

3. 결 론

이 글에서는 언어습득의 두 단계를 구분하고 어린이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는 모국어 습득의 내용을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모국어습득에서 나타나는 심리언어학적특징을 종합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령전의무교육,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언어학적측면에서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였다.

모국어습득과 관련한 문제들속에는 아직 언어발달의 개별적차이의 원인이라든가 특히 어린이언어장애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치료내용과 교육방법 등과 같은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앞으로 모국어습득에 대한 연구의 폭도 더욱 넓히고 그 내용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교육부문에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모국어습득, 웅아리, 립계기